

여주 매룡리 용강골고분군 발굴 성과와 성격

송 기 호(서울대)

1. 고분군의 위치와 환경

매룡리고분군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와 매룡리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다. 여주읍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직선거리에 있는 해발 175.3m의 황악산(황학산)에서 북쪽으로 뺏어내린 산줄기가 여주읍을 남쪽으로 감싸고 있는데, 매룡리 고분군은 이 산줄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산줄기의 높이는 대체로 해발 80m 정도로 낮으막한데, 아직 전면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전역에 걸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분들이 도로 개설이나 분묘 조성, 경작지 조성, 도굴 등으로 파괴되어 있음이 목격되었다.

이 고분군 중에서 일제시대에 조사된 고분들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상리에 속하여 매룡리고분군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반면, 한림대학이 조사한 고분들은 매룡2리에 속하여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일제시대에 조사 보고된 고분과 이번에 조사한 고분이 양식상에서 서로 달리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림대학이 주관하여 발굴한 지역의 고분군을 '여주 매룡리 용강골고분군', 약하여 '용강골고분군'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2. 발굴 경과

1) 발굴 및 지표조사 연혁

- (1) 1916년 9월 ; 2기의 석실묘 보고, 제1호 고분에서 5점의 석침 발견
- (2) 1927년경 ; 2기(제2호, 제8호) 중 제2호 고분은 1916년의 제1호와 동일
제2호 실측도 ; 5점의 석침, 2점의 손칼, 2점의 금동귀걸이
- (3) 1916, 1917년경에 작성된 '고적대장'을 바탕으로 편찬한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 에는 상리
고분 10기, 매룡리고분 50여기로 기록
- (4) 1984년 ; 단국대학 박물관 지표조사

- (5) 1985-1986년 ; 한양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
- (6) 1987년 10월 11일-11월 20일 ; 한림대학 박물관 1차 발굴
 석실묘 8기(A, B지구) ; 토광묘 2기(C지구)
- (7) 1988년 7월 18일-8월 11일 ; 한림대학 박물관 2차발굴 석실묘 5기(D, E지구)

2) 1차, 2차 발굴 경과

(1) 1차 발굴

가. 발굴 고분

- A지구 ; A-1, A-3, A-4, A-5, A-6, A-7호 모두 6기(석실묘)
- B지구 ; B-1, B-2호 모두 2기(석실묘)
- C지구 ; C-1, C-2호(토광묘)-고려 후기의 것으로 추정됨

나. 출토 유물

- 석실묘
 석침 1점
 바리, 병, 단지, 굽다리접시 조각, 접시 등 토기 및 토기편 다수
- 토광묘
 상감청자 접시 1점, 수저 1벌, 관목, 관못, 토기편, 철제 가위, 호박 구슬 등

(2) 2차 발굴

가. 발굴 고분

- D지구 ; D-1, D-2호 모두 2기(석실묘)
- E지구 ; E-1, E-2, E-3호 모두 3기(석실묘)

나. 출토 유물

- 석침 4점
 굽다리접시와 뚜껑, 병, 단지, 접시, 바리 등 토기 및 토기편
 손칼 1점
 기와 조각 다수(봉토 내)

3. 고분 구조

1) 고분 입지

산기슭의 완만한 경사지에 생토를 약간 파고 들어가 석실을 만들었다.

2) 석실 평면

1차, 2차 발굴 고분들의 평면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석실의 장축 방향이 남북이고 연도가 남북의 동측 상부에 달린 ‘ㄱ’자형을 하고 있다.

예외) E-1호; 연도가 남벽 가운데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E-3호; 연도가 남벽 전체에 설치

참고) 일제시대 보고 고분; 장축 방향이 동서이고, 남벽의 가운데에 연도가 달린 'T'자형이다.

3) 벽

4벽을 모두 깬들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쌓았다.

벽의 일부가 주변의 흙의 압력에 의해 석실 안쪽으로 밀려나와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예) E-2호, E-3호; 후자의 경우 15cm 이상 밀려나왔음이 확인되었다. 또 추가장을 행할 때에 벽의 일부를 보수한 예도 발견되었다.

예) E-1호의 동벽

4) 시상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직접 올려놓는 시상은 보통 2개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하나를 마련한 경우도 있다.

두개의 경우 처음 1개는 서쪽 벽에 잇대어 남쪽 일부 공간을 남기고 시설하며, 두번째는 이 시상과 동벽 사이의 공간에 시설하였다. 두 개의 시상은 시기적으로 달리하여 시설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합장과 추가장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유1) 축조 재료의 차이; A-1, D-2호의 경우 제1시상은 깬돌로만, 제2시상은 깬돌과 냇돌로 축조하였다.

이유2) 내부 구조; 제1시상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쌓여졌고, 제2시상의 경우 제1시상보다 작거나 한 단 낮게 축조되었다.

시상이 한 개가 마련된 경우 석실 전면에 시설한 예가 있는가 하면 (A-7호), 동측에 배수로를 시설한 예도 있다. (B-2, E-3호).

한편 시상의 경계선이 남벽과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남벽과 비스듬하여 시상 모양이 사다리꼴을 하고 있는 예도 있다(E-1호).

시상 위에서는 석침이 발견되어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 머리를 바로 석침 위에 올려 놓았던 듯하다.

예) B-1(1개), D-2(2개), E-2(1개), E-3(1개)

5) 천정

대부분 석재가 도굴되어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적으나 보통 평천정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B-1호분은 말각천정을 하고 있어 다른 고분들과 양상이 다르다.

참고) 남한 지역에서의 말각천정 고분의 예

강원도 춘성군 방동리 2기

강원도 춘성군 신매리 1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1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1기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3기(?)

6) 연도

모두 남벽에 시설하였다. 위치는 남벽 동측이 보통이나 가운데 또는 전면에 시설된 경우도 있다. 또 연도 바닥을 묘실 바닥보다 높은 곳에 시설하였는데, 이것은 시신을 밖으로부터 시상으로 옮기는 데에 편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연도 앞에는 진흙과 마사를 다진 묘도가 시설되어 있었던 듯하다.

연도 내부에는 갯돌을 밖으로부터 채워 넣었다.

7) 봉토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D지구에는 잘 남아 있었다. 이곳의 예를 보면 봉토 크기는 지름이 12m 정도이고 현존 높이가 2m 정도가 된다. 봉토는 적갈색이나 암갈색 흙을 사용하였다.

4. 매장 방법

- 1) 합장과 추가장; 축조 시기를 달리 하는 2개의 시상, 벽의 일부 보수
- 2) 목관 미사용, 석침 사용; 목관의 흔적이 전혀 없고 석침 존재
- 3) 복침장; 석침의 위치
- 4) 연도 실제 사용; 연도에 채워진 돌이 밖으로부터 메워져 있었다. 또 제2시상에만 사용된 냇돌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연도 바닥이 높다.
- 5) 시신 위에 돌과 흙을 덮었는가?; 시상 위의 불규칙한 돌(A-7), 석침 위의 돌과 토기(D-2)
- 6) 薄葬

5. 유물

단지와 병이 주류. 2차 발굴에서는 병이 증가하고, 원통형의 병이 나타난다.

굽다리접시를 봉토 안에 의도적으로 매장한 예가 보인다.

예) A-1, D-1호 토기의 아가리나 입술 부분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매장하였다(2차 발굴).

토기의 바닥에서 몸통으로 꺾여 올라가는 부분을 칼로 깎아내어 말각 평저로 만든 예가 다수 보인다(2차 발굴).

손칼과 석침; 일제시대 보고된 이후 처음 확인되었다.

6. 연대

1) 여주의 연혁

중원문화권 지역으로 삼국의 세력이 교차되면서 문화 양상도 중첩되어 나타난다.

백제 영역권 시기 ; 5세기 중엽

고구려 영역권 시기 ; 5세기 말엽-6세기 중반

신라 영역권 시기 ; 6세기 중반 이후

2) 매룡리고분군의 연대에 대한 기존의 견해

1916년도 ; 신라시대

1927년도 ; 백제초기

김원용 ; 6세기 중엽 이후 구체적으로 7세기 중엽쯤(신라시대)

최병현 ; 6세기 중엽 이후(신라시대)

3) 용강골고분군에 대한 연대 추정

말각천정 ; 고구려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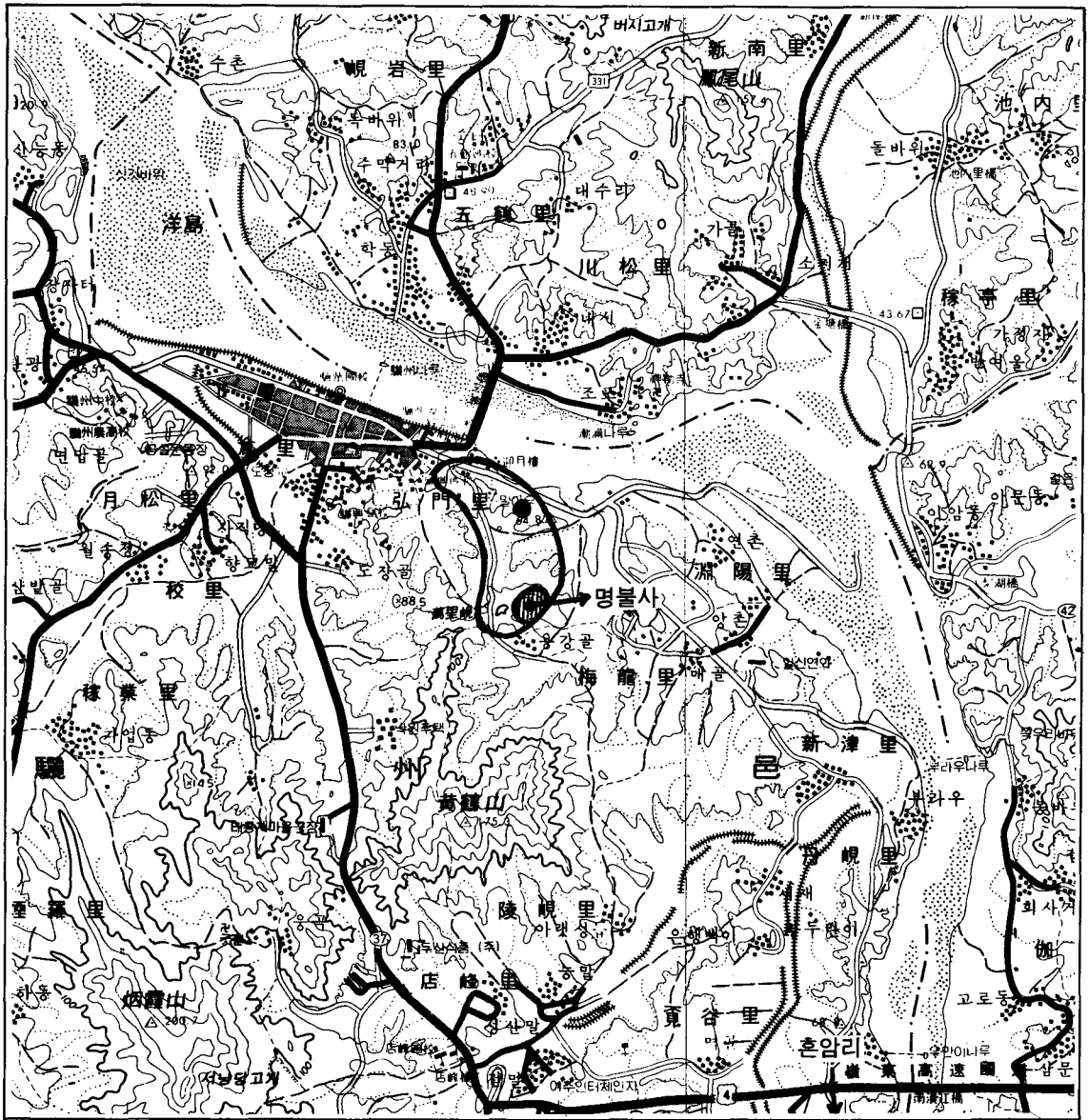
굽다리접시 ; 방이동, 이성산성 등의 굽다리접시와 동일하여 신라 진출기 이후로 추정됨

원통형의 병 ; 시기가 훨씬 떨어짐

목관 미사용, 석침장 ; 경주 지역과 비교됨(김원용, 최병현)

결론적으로 매룡리고분군은 그 분포 범위와 규모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써, 용강골고분군과 상리고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고분군 안이라 할지라도 각 지점마다 시기를 달리하고 양식을 달리하는 고분들이 밀집되어 나타난다.

이로 보건대 여주 지역에는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커다란 토착세력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이곳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고분들을 조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백제, 고구려, 신라의 통치를 차례로 받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 이곳에 출토된 토기 양상을 보면 백제 양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계속 가미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 고분 구조면에서도 고구려적인 말각천정이 일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매룡리 고분군
-  이번에 발굴한 용강골 고분군
-  일제시기에 조사된 상리고분

그림 1. 매룡리고분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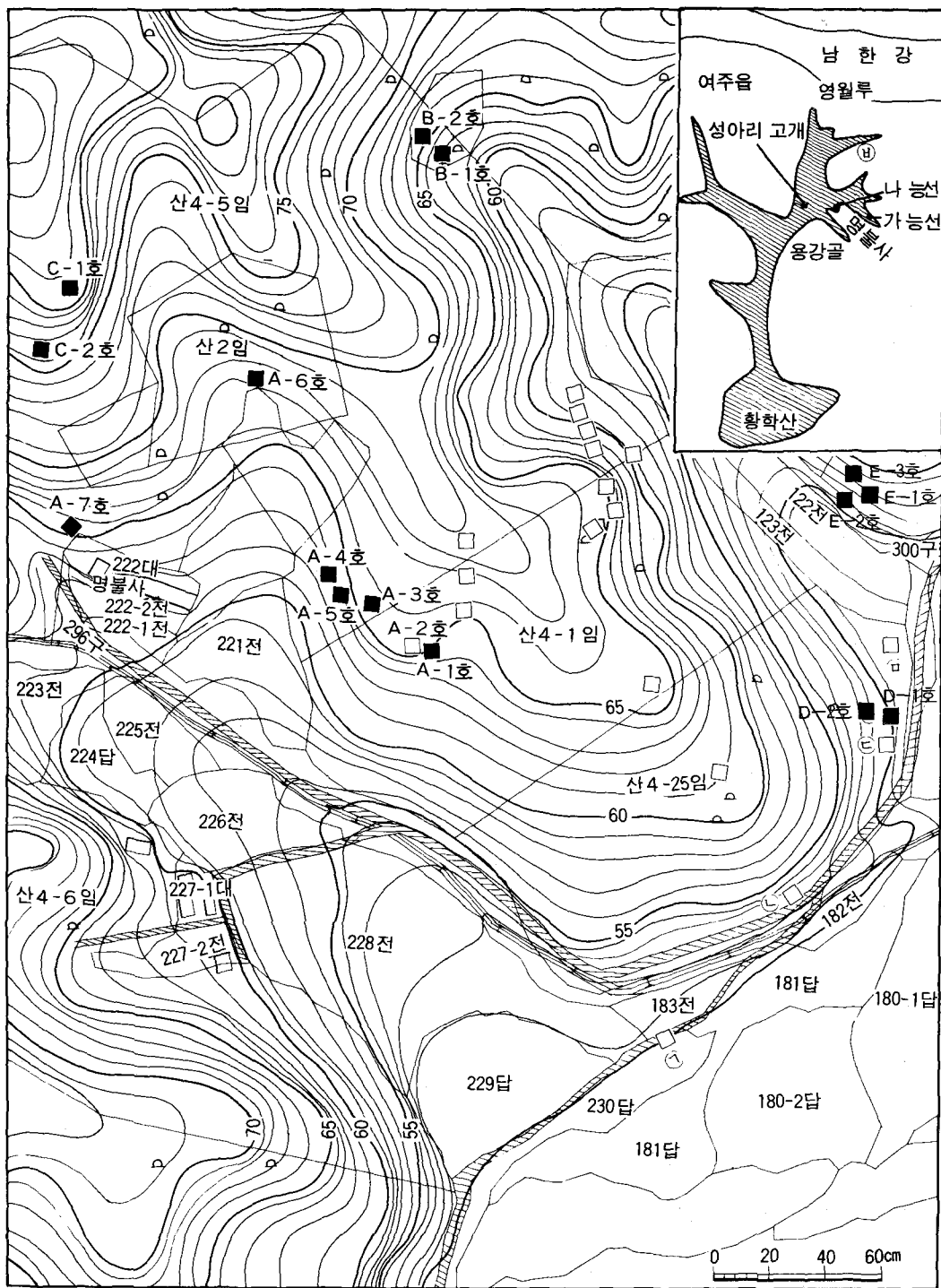


그림 2. 매룡리 용강골 고분군 분포도

■ 발굴한 고분
□ 발굴하지 않은 고분